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이규은¹⁾ · 염영희²⁾ · 장혜경³⁾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7년 49,270명, 2009년 75,850명, 2010년에는 83,842명으로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 중국 유학생 수는 2010년 59,490명으로 2004년 8,960명과 비교해 볼 때 6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이는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의 68.9%를 차지하는 수치이다(국가교육통계센터, 2010).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은 단순히 고등교육기관 정원 확보나 재정 확충의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깊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김희경 등, 2010).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으로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집단이나 사회가 지속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 한쪽이나 양쪽 집단 모두 본래 문화패턴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집단 간에 이미 가지고 있던 문화경향에 이차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개인집단들이 지속적인 직접적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현상을 문화적응이라고 한다(Berry, 2005). 일반적으로 자신의 문화와 다른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개인들은 문화적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Holleran & Jung, 2005). 특히 타문화로 이주한 유학생은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을 떠나 지각된 차별, 정체성 혼란 그리고 자신의 지지체계를 잃은 상실감 등으로 인해 문

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Ying, 2005).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유학생의 신체-정신 건강을 해치거나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결국 자신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Mori, 2000).

삶의 질에 영향하는 요인에는 크게 건강과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신체적 요인, 강인성과 같은 개인적 요인, 사회적 지지와 같은 환경적 요인, 자아존중감과 같은 인지적 요인 및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정서적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박효미와 윤영미, 2005).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유학생들은 학업관련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언어장벽, 인간관계, 정서적 문제, 미래와 취업에 대한 부담감, 학교제도에 대한 불만 및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여러 부수적인 어려움으로 신체적 건강은 물론 심각한 정신적 건강문제를 지니게 된다(하정희, 2008). 특히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주로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신체적, 정신적 성숙과 함께 자신의 실체와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나 역할 능력 등을 신장시켜 나아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초래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Ying, 2005). 이때 적절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심리사회적 과정에서 초래되는 질병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김정아, 김인경, 2011), Khan과 Husain(2010)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심리적 강점과 주관적인 안녕에 대한 매개변수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오가실 등(2008)도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주요어 : 중국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삶의 질

1) 관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3) 한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hkchang@hanseo.ac.kr)

투고일: 2011년 9월 15일 심사완료일: 2011년 12월 6일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12일

언급하고 있다.

한편, 최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고는 있으나, 주로 교육, 복지, 심리학 분야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거나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하정희, 2008; Pan, Wong, Joubert, & Chan, 2007; Berry, 2005). 간호학에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학업 관련 특성, 문화적 특성, 우울, 자기효능감, 적응유연성, 사회적 지지 등 각각의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연구(Holleran, & Jung, 2005; 김정아와 김인경, 2010)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외국인 유학생의 삶의 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들은 다른 문화적, 사회적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부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학업부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김희경 등, 2010), 건강문제 해결과 함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촉진자로서, 교육자로서의 간호사 기능은 개인이 처한 환경을 변화시키고 극복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교육시킴으로써 대상자가 보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임숙빈 등, 2002)이라고 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 외국인 유학생들의 지속적인 간호관리는 추후 한국에 대한 지지세력 확보 및 교육적 측면에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최근 국내 유입되는 유학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유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절한 간호중재를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연구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주관적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한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주관적 삶의 질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연구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주관적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연구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도시인 S시, 중소도시인 G시 및 S시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유학생 304명을 비확률적 표출법으로 편의 표출하였다.

표본수는 G*Power 3.0 program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의 크기를 구한 결과 유의수준(α) .05, 중간 효과 크기 .15, 검정력 80%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예상 대상자 수가 118명으로 본 연구 대상자 수 304명은 이 조건을 충족시켰다.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역 번역(back-translation) 과정을 거친 후 사용하였다. 첫 단계에서 설문지는 한글로 구성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 책임연구자가 재직 중인 대학교에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중국어과 교수가 중국어로 번역하였다. 번역된 중국어를 제 3의 중국어과 교수가 한국어와 중국어로 된 설문지를 비교하여 설문지의 동등성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중국어로 구성된 설문지를 학생들에게 배부하였다.

● 문화적응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Sandhu와 Asrabadi가 개발하고 이승중(1995)이 변안한 36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낮은 7문항을 삭제한 29개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승중의 연구에서 총 문항의 Cronbach's alpha는 .93이었으며 각 하위 요인은 .48~.82이었다. 본 연구에서 총 문항의 Cronbach's alpha는 .95이었으며 각 하위 요인별 Cronbach's alpha는 지각된 차별감 .86, 적대감 .85, 두려움 .76, 죄책감 .61, 및 기타 스트레스 .82로 나타났다.

●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Zimet, Dahlem, Zimet와 Fareley가 개발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척도를 길귀숙(2003)이 번안한 12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거의 그렇다’(5점)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길귀숙(200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93이었다.

● 주관적 삶의 질

본 연구에서 주관적 삶의 질은 최명심과 손정락(2007)이 개발한 대학생의 주관적 삶의 질 척도로 29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가족, 대인관계, 학업, 여가 및 환경의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인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최명심과 손정락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alpha는 .83이었으며 하위요인은 .60~.84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alpha는 .88이었으며 각 하위 요인별 Cronbach's alpha는 가족 .85, 대인관계 .85, 학업 .82, 여가 .85 및 환경 .74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은 2011년 4월 20일부터 2011년 6월 20일까지 대도시인 S시, 중소도시인 G시 및 S시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소속하고 있는 대학교의 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연구목적과 진행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심의결과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IRB No. 11-024). 자료 수집을 위해 각 연구자가 소속 대학교의 국제교류교육센터를 방문하여 연구 협조를 구하였다. 중국인 유학생을 전담하는 직원이 교육센터를 방문하는 유학생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한 후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연구목적, 대상자의 익명성, 비밀보장, 연구철회 및 연구자 연락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구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였다. 중국인 유학생을 전담하는 직원은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400부였는데 최종적으로 회수된 질문지는 총 320부로(80%), 이 중 답변내용이 부실한 자료는 제외하고 30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측정 변수 각각에 대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측정변수의 차이는 ANOVA를, 측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수학 과정, 건강상태 및 한국 체류기간은 주관적 삶의 질에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3개의 변수는 통제하였다. 통제변수인 수학과과정에서 학위과정은 0, 어학연수과정은 1, 본인이 지각하는 건강상태가 건강하다는 경우 0, 그 외 경우 1,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0, 12개월 이상인 경우 1의 값을 갖도록 더미(dummy)변수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1단계에서는 3개의 통제변수를 종속변수인 주관적 삶의 질에 회귀시켰고, 2단계에서는 3개의 통제변수에 5개의 독립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즉, 지각된 차별감, 지각된 미워함, 두려움, 죄책감 및 기타 스트레스를 더하여 종속변수인 삶의 질에 회귀시켰다. 3단계에서는 3개의 통제변수, 5개의 스트레스 변수 및 사회적 지지를 종속변수인 주관적 삶의 질에 회귀시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가 회귀분석에 적합하지 진단하기 위하여 회귀모형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분산 검정을 위해 잔차도표(plot)를 살펴본 결과 등분산성이 확인되었고, 둘째,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더빈 왓슨(Durbin-Watson) 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2.020(총 주관적 삶의 질), 주관적 삶의 질 하위요인은 1.867~2.245 사이에 있어 오차항 간의 자기상관성이 없었다. 셋째, 오차 항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 P-P 도표를 살펴본 결과 정규분포를 보여 정규성이 검증되었다. 넷째,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지수(VIF)가 1.046~1.251 사이에 있어 다중공선성이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은 회귀분석을 위한 가정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본다.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연구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2.50(±2.99)세, 체류기간은 평균 22.89(±17.74)였으며, 12개월 미만 체류한 대상자는 118명

(38.8%), 12개월 이상 체류한 대상자는 186명(61.2%)이었다. 남자는 107명(35.2%), 여자는 197명(64.8%)이었고, 거의 모두 미혼(98.0%)이었으며 한족(87.2%)이었다. 학점은 3.0 이상이 153명(50.3%), 3.0 미만이 151명(49.7%)이었다. 주거형태로는 연구 대상자 중 161명(53.0%)이 전세 혹은 월세로 살고 있었고 133명(43.8%)이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연수과정에 다니는 연구 대상자는 85명(28.0%)이었고, 학위과정에 다니는 연구 대상자는 219명(72.0%)이었다. 등록금은 과반수이상인 228명(75.0%)이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어를 중간정도로 구사하는 대상자는 140명(46.1%)이었다. 또한 157명(51.6%)이 직업을 갖기 원하였으며, 건강상태에서는 대부분의 연구 대상자가 건강하다고 느끼고 있었다(Table 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304)

Category	Classification	n (%)	Mean ±SD
Age(years)			22.50±2.99
Length of stay in Korea (month)	<12	118 (38.8)	22.89±17.74
	≥12	186 (61.2)	
Gender	Male	107 (35.2)	
	Female	197 (64.8)	
Marital status	Not married	298 (98.0)	
	Married	6 (2.0)	
Ethnicity	Hanjok	265 (87.2)	
	Chosunjok	17 (5.6)	
	Others	22 (7.2)	
Grade point average	≥3.0	153 (50.3)	
	<3.0	151 (49.7)	
Type of living	Dormitory	133 (43.8)	
	Lease	161 (53.0)	
	Others	10 (3.3)	
Type of program	Language	85 (28.0)	
	Degree	219 (72.0)	
Payer for tuition	Parents	228 (75.0)	
	Others	76 (25.0)	
Fluency of Korean	Good	43 (14.1)	
	Moderate	140 (46.1)	
	Poor	121 (39.8)	
Future plan	Continuing study	147 (48.4)	
	Having jobs	157 (51.6)	
Health status	Healthy	248 (81.6)	
	Other	56 (18.4)	

연구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주관적 삶의 질 정도

연구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주관적 삶의 질 정도는 다음과 같다(Table 2). 연구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응답범위 1~5점 사이에 평균 2.08±0.63점으로

중간보다 낮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지각된 차별감은 평균 2.14±0.70점, 적대감은 2.08±0.66점, 두려움은 평균 2.05±0.77점, 죄책감은 1.71±0.76점 및 기타 스트레스는 2.26±0.63점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응답범위 1~5점 사이에 평균 3.79±0.70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정도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삶의 질은 응답범위 1~5점 사이에 평균 3.59±0.43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관적 삶의 질 하위요인인 가족은 평균 4.27±0.6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인관계 평균 3.90±0.69점, 학업 평균 3.32±0.85점, 여가 평균 3.26±0.58점 및 환경 평균 3.19±0.60점 순이었다.

<Table 2>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N=304)

Variables		Mean ±SD	Min	Max
Acculturative stress	Total	2.08±0.63	1.00	4.14
	Sense of discrimination	2.14±0.70	1.00	4.10
	Sense of hostility	2.08±0.66	1.00	4.20
	Fearfulness	2.05±0.77	1.00	4.25
	Guilty feeling	1.71±0.76	1.00	4.50
	Others	2.26±0.63	1.00	3.90
Social support		3.79±0.70	1.75	5.00
Subjective quality of life	Total	3.59±0.43	2.14	5.00
	Family	4.27±0.63	2.20	5.00
	Interpersonal	3.90±0.69	1.00	5.00
	Job	3.32±0.85	1.00	5.00
	Leisure	3.26±0.58	1.56	5.00
	Environment	3.19±0.60	1.00	5.00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주관적 삶의 질 정도 차이

연구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주관적 삶의 질 정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3). 연구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체류기간($t=-2.94, p=.004$), 성적($t=2.37, p=.018$), 주거형태($t=-3.54, p<.001$), 수학과정($t=-3.71, p<.001$), 진로($t=-3.18, p=.002$) 및 건강상태($t=-3.20, p=.00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체류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집단이 체류기간 12개월 미만인 집단 보다, 학점 3.0 이상인 집단이 학점 3.0미만인 집단 보다, 월세나 기타 방법으로 거주하는 집단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집단보다, 학위과정에 수학하는 집단이 언어연수과정에 있는 집단보다, 직업을 갖기 원하는 집단이 계속 공부하겠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또한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하지 않은 집단이 좋다고 응답

<Table 3> Differences of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by participan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304)

Variables	Categories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Subjective quality of life	
		Mean ±SD	t/F (p)	Mean ±SD	t/F (p)	Mean ±SD	t/F (p)
Length of stay	<12	1.95±0.59	-2.94	3.82±0.66	0.58	3.65±0.39	2.05
	≥12	2.17±0.64	(.004)	3.78±0.72	(.565)	3.55±0.44	(.041)
Gender	Male	2.11±0.64	0.41	3.60±0.66	-3.61	3.58±0.45	-0.30
	Female	2.07±0.62	(.683)	3.90±0.69	(<.001)	3.59±0.42	(.762)
Marital status	Not married	2.08±0.63	-1.77	3.79±0.70	-0.93	3.59±0.42	0.17
	Married	2.53±0.74	(.077)	4.06±0.47	(.355)	3.56±0.62	(.867)
Ethnicity	Hanjok	2.11±0.64	2.07	3.78±0.71	1.50	3.58±0.42	2.15
	Chosunjok	2.08±0.48	(.129)	3.71±0.61	(.225)	3.51±0.51	(.119)
	Others	1.18±0.55		4.03±0.62		3.76±0.38	
Grade point average	≥3.0	2.17±0.66	2.37	3.77±0.69	-0.58	3.56±0.45	-1.20
	<3.0	2.00±0.59	(.018)	3.82±0.70	(.562)	2±0.40	(.231)
Type of living	Dormitory	1.94±0.58	-3.54	3.82±0.69	0.62	3.64±0.41	1.79
	Lease/others	2.20±0.65	(<.001)	3.77±0.71	(.539)	3.55±0.44	(.075)
Type of program	Language	1.86±0.57	-3.71	3.90±0.73	1.64	3.69±0.40	2.62
	Degree	2.16±0.63	(<.001)	3.75±0.68	(.103)	3.55±0.43	(.009)
Payer for tuition	Parents	2.09±0.63	0.09	3.80±0.70	0.33	3.59±0.43	0.39
	Others	2.08±0.63	(.930)	3.78±0.68	(.744)	3.57±0.44	(.694)
Fluency of Korean	Good	2.04±0.62	0.50	3.85±0.69	0.28	3.60±0.52	0.09
	Moderate	2.07±0.65	(.609)	3.82±0.68	(.797)	3.59±0.44	(.911)
	Poor	2.11±0.62		3.75±0.72		3.57±0.38	
Future plan	Continuing study	1.94±0.57	-3.18	3.83±0.73	1.09	3.64±0.42	1.67
	Having jobs	2.20±0.67	(.002)	3.73±0.66	(.277)	3.55±0.46	(.096)
Health status	Healthy	1.94±0.66	-3.20	3.88±0.70	1.67	3.71±0.46	3.97
	Others	2.18±0.59	(.002)	3.74±0.69	(.097)	3.51±0.39	(<.001)

한 집단 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는 성별(t=-3.61,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류기간, 결혼상태, 민족, 성적, 주거형태, 수학과정, 유학비용, 한국어 유창성, 진로 및 건강상태에 따라 사회적 지지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주관적 삶의 질은 체류기간(t=2.05, p=.041), 수학과정(t=2.62, p=.009) 및 건강상태(t=3.97,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체류기간이 12개월 미만 집단이 12개월 이상 체류한 집단 보다, 언어연수과정에 있는 집단이 학위과정에 있는 집단보다,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지각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주관적 삶의 질 점수가 높았다.

연구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지각된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사회적 지지 및 주관적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모든 변수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각각의 하위요인과 사회적 지지는 역 상관관계를,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삶의 질은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문화적

응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았으며 주관적 삶의 질은 낮았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주관적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304)

	1	2	3	4	5	6	7
	r (p)	r (p)	r (p)	r (p)	r (p)	r (p)	r (p)
1	1						
2	.83 (<.001)	1					
3	.79 (<.001)	.76 (<.001)	1				
4	.64 (<.001)	.63 (<.001)	.67 (<.001)	1			
5	.82 (<.001)	.79 (<.001)	.78 (<.001)	.63 (<.001)	1		
6	-.33 (<.001)	-.34 (<.001)	-.31 (<.001)	-.31 (<.001)	-.34 (<.001)	1	
7	-.48 (<.001)	-.46 (<.001)	-.47 (<.001)	-.32 (<.001)	-.48 (<.001)	.56 (<.001)	1

1=Sense of discrimination; 2=Sense of hostility; 3=Fearfulness; 4=Guilty feeling; 5=Others stress; 6=Social support; 7=Subjective quality of life

연구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종속변수인 주관적 삶의 질의 경우, 3개의 통제변수들만 포함하고 있는 Model 1은 주관적 삶의 질의 6.0%를 설명하였으며 건강상태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경우 주관적 삶의 질이 더 높았다.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포함한 Model 2는 주관적 삶의 질의 34.0%를 설명하였으며, 건강상태, 죄책감 및 기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3개의 통제변수, 5개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를 모두 고려한 Model 3은 주관적 삶의 질의 51.5%를 설명하였으며, 건강상태($\beta=.10, p=.021$), 죄책감($\beta=-.17, p=.003$), 기타 문화적응 스트레스($\beta=-.39, p<.001$) 및 사회적 지지($\beta=.45, p<.001$)가 주관적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죄책감이 낮을수록, 기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Hierarchical regression for subjective quality of life (N=304)

Variable	Subjective quality of life		
	Model 1 B (p)	Model 2 B (p)	Model 3 B (p)
Control variable			
Length of stay	.03 (.720)	.02 (.789)	-.03 (.576)
Program	.11 (.108)	.03 (.664)	-.01 (.909)
Health status	.22 (<.001)	.13 (.013)	.10 (.021)
Independent variable			
Sense of discrimination		.03 (.750)	.08 (.373)
Sense of hostility		-.01 (.959)	.03 (.718)
Fearfulness		.01 (.949)	.04 (.624)
Guilty feeling		-.24 (<.001)	-.17 (.003)
Others		-.41 (<.001)	-.39 (<.001)
Social support			.45 (<.001)
F(p)	7.07 (<.001)	19.39 (<.001)	34.57 (<.001)
R ²	.070	.359	.530
Adjusted R ²	.060	.340	.515

논 의

본 연구는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서 향후 중국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통해 주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호 중재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는 5점 척도에서 2.08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낮았다. 외국인 노동자를 대

으로 한 이순희, 이영주, 김숙영과 김신정(2009)의 연구에서는 2.52점,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나임순(2006)의 연구에서는 3.23점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 대상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선행연구 결과들 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척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적대감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이 이들 중국 유학생에게는 적대감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적 지지 정도는 5점 척도에서 3.79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는 아니지만 이순희 등(2009)의 연구에서는 3.75점, 김정아와 김인경(2011)의 연구에서는 75.41점(33문항으로 환산한 결과 2.28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 대상자들의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에 대해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결과를 비교하고 중국 유학생들을 도울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관적 삶의 질의 정도는 3.59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없어 비교하기가 어려우나 일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영미(2007)의 연구에서 3.19점, 류미경, 박경민과 김정남 (1999)의 연구에서 3.09점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대체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결과는 선행 연구결과보다 대체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낮고,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삶의 질은 높은 편이었다. 이는 아마도 중국인 유학생들끼리 자신들만의 집단 안에서만 생활함으로 인해 한국어 실력에 문제가 있어도 크게 불편함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서지연, 2009)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주관적 삶의 질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체류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집단이 12개월 이상 집단보다, 언어연수과정에 있는 학생이 학위과정에 있는 학생들보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할 계획이 있는 집단이 직업을 가질 계획이 있는 집단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았고, 주관적 삶의 질은 높았다. 즉 체류기간이 짧은 집단은 주로 단기 언어연수과정에 있는 학생들이고 이들은 언어연수과정 후 학위과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 집단으로 학업에 대한 부담이 적고 직업선택이나 체류 문제 등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적어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고 삶의 질이 낮은 정규학위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학업 멘토나 스터디 그룹 결성 및 가입을 도와 줄 필요가 있다.

성별은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는 김정아와 김인경(2011)의 연구결과와는 달랐다. 김진희와 최만규(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

는 상황은 남성이 높은 반면, 사회적 지지의 수는 여성이 높다고 하여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결과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추후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고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성적은 3.0 이상 집단이 3.0점 미만 집단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았는데 이는 성적이 낮은 집단일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경향을 보인 선행연구(김정아와 김인경, 2011; 김희경 등, 2010)와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주거형태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전세나 월세 및 기타의 방법으로 거주하는 집단이 기숙사 거주 집단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았다. 이는 나임순(2006)의 연구에서 전세나 월세에 사는 집단이 기숙사에 사는 집단보다 생활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한 것과 비슷한 결과로, 기숙사는 학교생활이 편리하고 학우들과의 공동생활을 통해 친구사귀기가 용이하며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능한 기숙사 거주를 유도하는 방법이 스트레스 관리의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상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주었는데 건강이 좋다고 지각한 집단이 나머지 다른 사람들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낮았고 주관적 삶의 질은 높았다. 이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6개국 아시안들(중국, 필리핀, 일본, 한국, 남아시아, 베트남)의 인종차별 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Gee와 Ponce(2010)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아시안계 미국인의 인종차별에 대한 지각은 만성통증이나 심맥관계 및 호흡기계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Gee, Spencer, Chen과 Takeuchi(2007)의 연구결과와도 관련이 있다. 최명섭과 손정락(2007)도 주관적 삶의 질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결과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다음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주관적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각 하위요인인 지각된 차별감, 적대감, 두려움, 죄책감 및 기타 스트레스 요인은 사회적 지지 및 주관적 삶의 질과는 역 상관관계가, 사회적 지지는 주관적 삶의 질과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우선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간의 선행 연구결과를 보면 이승중(1995)의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각 하위영역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 간에는 역 상관관계를 보였고, Thomas와 Choi(2006)는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 부모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 조직 활동으로 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에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었으나 리 슈에자오(2010)는 제한 중국학생들에게 16회의 행복훈련 집단 상담을 한 후 행복감의 하위요인인 삶의 질 점수가 높아지고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을 보였다.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삶의 질 간 상관관계에서 본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주관적 삶의 질이 좋았는데 장우귀, 박영심과 김의철(2007)은 291명의 대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인간관계와 삶의 질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대학생들은 부모나 친구와의 애정적인 관계가 삶의 질과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인 중국인 유학생의 주관적 삶의 질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통제변수만 고려하였을 때, 주관적 삶의 질의 6.0%를 설명하였으며 통제변수 중 건강상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와 동일한 변수를 사용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는 어려우나 이영미(2007)의 연구에서 본인의 건강상태, 정규적 건강검진, 입원경험, 체중관리 등 건강관련 요인들이 대학생의 삶의 질 예측요인이었던 것과 비슷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수가 주관적 삶의 질을 28.0% 설명하였으며 스트레스 변수 중 죄책감과 기타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와는 달리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각 하위요인을 분석하지는 않았고 연구대상자도 달랐지만 권명희(2011)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여성 학력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의 14.2%를 설명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을 보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주관적 삶의 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남한 이주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소래(1997)의 연구에서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지지제공자로서 양부모 여부와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하여 54.0%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중 사회적 지지가 설명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이 유학생의 주관적 삶의 질 예측에 대한 설명력이 비교적 높았으나 추후 보다 더 높은 예측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정교한 연구 설계와 이론적 배경에 기초한 변수확인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건강상태, 죄책감, 기타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의 4가지 변인이 중국 유학생의 주관적 삶의 질 변이의 51.5%를 설명하여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중국 유학생들의 주관적 삶의 질 정도와 이에 영향하는 요인을 확인하여 중국 유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중국 유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학과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조수현(2010)은 대학서비스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와 한국어 숙달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행정(직원)서비스는 문화적응이 학업에 대한 적응과 사회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키고, 물리적 환경은 문화적응과 언어문제가 학업에 대한 적응과 사회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한다고 하여 유학생에 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에 대학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연구 대상자가 3개 시도에 위치한 4년제 대학에서 표집하였으나 편의표집의 한계는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둘째, 조사 당시 한 시점에서만 자료를 수집한 횡단적 연구이므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주관적 삶의 질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도구는 자가보고형 설문지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향으로 편중되어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주관적 삶의 질의 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주관적 삶의 질 정도는 평균점 3.59±0.43점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인 변수는 체류기간, 수학과정 및 건강상태로 나타났다. 주관적 삶의 질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역 상관관계를, 사회적 지지와는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중국유학생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상태, 죄책감, 기타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삶의 질을 51.5% 설명하였다. 따라서 추후 중국유학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지원체계 및 지지망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대학차원에서 유학생을 위한 국제교류교육센터 내 상담 및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제공, 학교 보건실과의 연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중국유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추후 각 국가별 유학생들과 특성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변수 이외 중국유학생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규명과 규명된 연구변수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 변수를 이용하여 중국유학생의 주관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권명희 (201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심리사회적 자원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청주.
- 길귀숙 (2003). *노인만성질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서울.
- 김정아, 김인경 (2011).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7(1), 52-61.
- 김진희, 최만규 (2010). 성별에 따른 아파트 주민의 음주,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연결망과의 관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1(1), 105-115.
- 김희경, 손연정, 이미라, 임경춘, 장혜경, 한수정, 양남영, 유명란, 고은자 (2010). 국내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향요인. *성인간호학회지*, 22(2), 143-152.
- 나임순 (2006).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영리연구*, 5(2), 159-197.
- 류미경, 박경민, 김정남 (1999). 일부지역 대학생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 *대한보건협회학술지*, 25(1), 29-42.
- 리 슈에자오 (2010). *행복훈련 집단상담이 행복감 증진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대구.
- 박효미, 윤영미 (2005). 화상환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 *성인간호학회지*, 17(1), 100-108.
- 서지연 (2009).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우석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전주.
- 오가실, 오경옥, 이숙자, 김정아, 정주자, 김혜령, 전화연, 강정희 (2008). 한국 사회적지지 측정도구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38(6), 881-890.
- 이승중 (1995).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이순희, 이영주, 김숙영, 김신정 (2009).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한간호학회지*, 39(6), 899-910.
- 이소래 (1997). 사회적 지지가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상담연구*, 5(1), 209-247.
- 이영미 (2007). 대학생의 삶의 질과 관련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4(2), 77-91.
- 임숙빈, 오희영, 박영임, 이은현, 이숙 (2002). 예방적 정신간호를 위한 극복력 개념의 탐색. *정신간호학회지*, 11(3), 304-315.

- 장우귀, 박영신, 김의철 (2007). 대학생과 부모의 인간관계, 자 기효능감과 삶의 질에 대한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4(2), 1-17.
- 조수현 (2010). *부산·경남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서비스 와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부산.
- 최명심, 손정락 (2007). 대학생의 주관적 삶의 질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2), 289-305.
- 하정희 (2008).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0(2), 473-496.
- 국가교육통계 센터 (2010).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 http://blog.naver.com/kedi_cesi.
- Berry, J. W.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697-712.
- Gee, G. D., & Ponce, N. (2010). Association between racial discrimination, limited English proficiency,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6 asian ethnic group in California.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0(5), 888-895.
- Gee, G. C., Spencer, M. S., Chen, J., & Takeuchi, D. (2007). A national wide study of discrimination and chronic health conditions among Asian American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7(7), 1275-1282.
- Holleran, L. K., & Jung, S. (2005). Acculturative stress, violence, and resilience in the lives of Mexican American youth. *Stress, Trauma and Crisis: An International Journal*, 8, 107-130.
- Khan, A., & Husain. A. (2010).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positive psychological strengths and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Reports*, 106(2), 534-538.
- Mori, S. (2000). Addressing the mental health concerns of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8, 137-144.
- Pan, J., Wong, D., Joubert, L., & Chan, C. (2007). Acculturative stressor and meaning of life as predictors of negative affect in acculturation: a cross-cultural comparative study between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Australia and Hong Kong, *Australian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1, 740-750.
- Thomas, M., & Choi, J. B. (2006).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support among Korean and Indian immigrant adolesce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ociology & Social Welfare*, 33, 123-143.
- Ying, Y. (2005). Variation in acculturative stressors over time: A study of Taiwanese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59-71.

Influences of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Subjective Quality of Life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Lee, Kyu Eun¹⁾ · Yom, Young-Hee²⁾ · Chang, Hae Kyung³⁾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wandong University

2)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3)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nseo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among college students from China. **Methods:** The research design was a descriptive survey design using convenience sampling. Data was collected by using a self-questionnaire completed by 304 Chinese students located in three cities, namely, Seoul, Gangneung, and Seosan.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 Win 12.0 Program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The average score on subjective quality of life was 3.59 ± 0.43 .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length of stay, type of program, and health status.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ha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acculturative stress and positive correlation with social support. The explained variance for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was 51.5%. Variables on health status, guilt feelings, other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support significantly predicted the degree on subjective quality of life. **Conclusion:** Findings on this study provid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n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and related factors for Chinese students in Korea. However, further studies with a larger random sample and more detailed research design is necessary.

Key words : Chinese, Acculturation, Stress, Social support, Quality of life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ang, Hae Kyung

Dept of Nursing, Hanseo University

360 Daegok-ri, Haemi-myun, Seosan-si, Chungcheongnam-do, Korea, 356-706

Tel: 82-10-3296-6517 Fax: 82-41-660-1087 E-mail: hkchang@hanseo.ac.kr